

# SPORTS 또 무너진 마무리 정해영... 뒷문지기 안정화 시급

2025년 9월 3일 수요일



7패로 팀 내 최다... 불론세이브는 7개로 리그 2위

치열한 가을야구 싸움 속 치명타... 전상현 대안도

KIA타이거즈 마무리투수 정해영이 좀처럼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승리를 지키지 못한 채 연일 무너지면서 팀 또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다.

KIA는 지난달 31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kt위즈와의 경기에서 6-7 재역전패를 당했다. 가을야구 티켓을 두고 직접 경쟁하는 팀에게 당한 패배라 더욱 뼈아팠다.

이날 KIA는 3-4 끌려가던 경기를 8회초 뒤집었다. 선두타자 최형우가 몸에 맞는볼로 출루했고, 위즈덤 대타 나성범이 좌전 2루타를 폭발시켰다. 오선우 삼진 이후에는 김석환이 희생플라이를 성공시켰고, 후속타자 김규성이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을 만들면서 6-4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8회말 전상현이 등판해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면서 KIA가 승기를 굳히는 듯했다.

그러나 9회초 등판한 정해영이 2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무너졌다. 그는 2사 1루 상황 상대 황재균에 볼넷을 내준 뒤 장성우에게 1타점 적시타를 허용했다. 이어 김상수와의 8구 승부 끝에 끝내기 2타점 2루타를 내주면서 고개를 숙였다.

결국 KIA는 kt와의 주말 경기를 루징시리즈로 마무리 지었고, 리그 8위에 머물렀다.

올 시즌 시작 전 1강으로 꼽혔던 다변형 챔피언 KIA는 후반기 중하위권을 전전하고 있다. 불펜진의 컨디션 난조가 큰 문제인데, 그중에서도 정해영의 부진이 가장 치명적이다.

정해영은 올 시즌 52경기에 출전해 26개의 세이브를 올렸으나 피안타율이 0.309, 평균자책점은 4.17에 달한다. 특히 불론 세이브는 7개로 리그에서 2번째로 많고, 패배 역시 7패

로 팀 내 모든 투수 중 가장 많다. 더욱이 순위 반등을 위해 가장 중요했던 지난 두 달 동안 불론 세이브 4개에 4패를 기록했다.

앞서 KIA는 정해영의 회복을 위해 시즌 중간마다 휴식을 부여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구위 저하 등을 이유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하며 시간을 쉰고, 10일을 채운 뒤 풀업했다. 이범호 감독은 정해영을 단 하루만 중간계투에 투입한 뒤 곧바로 마무리로 변경했다. 그럼에도 정해영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복귀 후 첫 세이브 상황에서 무너졌다.

이번 패배로 KIA는 2일 경기 전 기준 5위권과 3.5개임차로 멀어졌다. 9월 KBO리그가 잔여경기 일정에 몰입하며 변수가 많아진 가운데, 22경기만 남은 것도 문제다.

KIA가 가을야구 진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5할 윗선을 회복하려면 남은 경기 중 7월에 가까운 경기를 이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펜 안정화가 필수적이고, 마무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KIA는 마무리 교체에 대한 생각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대안도 있다. 바로 전상현이다.

전상현은 올 시즌 65경기에서 7승 3패 1세이브 22홀드 평균자책점 3.18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전상현 역시 5개의 불론 세이브 기록했지만, 현재 KIA 불펜진 가운데 가장 믿음직한 투수다.

성적도 후반기로 좀처럼 16경기 1승 1패 1세이브 5홀드 평균자책점 1.59로 맹활약 중이다. 이미 정해영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마무리 역할 또한 수행해냈다.

KIA는 이번 주 한화전을 시작으로 직접 가을야구 티켓을 두고 다투는 SSG·kt·NC와 경기를 치른다. 갈 길이 먼 KIA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국내 실업팀 최초’ OK 웃맨 럭비단, 중학생 아카데미 진행

전국 10개교 180여명 참가  
패스 등 체계적 프로그램 눈길

광주에 연고를 둔 OK 웃맨 럭비단이 지난달 29~31일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국내 실업팀 최초로 럭비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전국 중학생 럭비 선수를 대상으로 한 이번 아카데미에는 전국 10개 중학교 180여명의 럭비 선수와 지도자들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럭비 미래를 이끌 꿈나무들에게 진정한 럭비 정신을 전달하고 올바른 럭비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OK금융그룹 회장의 취지 아래 기획됐다.

‘함께 웃고 부딪히며 배우는 럭비’를 모토로 누구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럭비가 무엇인지 익히고, 럭비의 참된 즐거움을 배우며 그 속에서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럭비 아카데미 일정은 패스·킥 등 기본기, 규칙·반칙 교육, 태클·리크·볼 캐리 등 기술 훈련, 영양 및 테이핑 교육까지 럭비 선수로서 성장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럭비 역사와 가치를 다루는 영상 강의와 영화 ‘60만 번의 트라이’ 상영도 진행됐다.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자 웃맨 럭비단을 이끌고 있는 오영길 감독은 ‘진짜 럭비의 기쁨을 함께 느껴달라’



OK 웃맨 럭비단이 지난달 29~31일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국내 실업팀 최초로 럭비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라며 럭비 아카데미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마지막 날에는 미니 럭비 경기와 운동회가 열려 승패를 떠나 참가자 모두가 서로 웃으며 손을 맞잡는 ‘노사이드 정신’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럭비 헤드기어, 헬멧코리아 용품 등 럭비 용품과 구단 기념품 등이 전달됐다.

국내 실업팀 최초로 개최한 이번 럭비 아카데미는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가가 더해지면서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됐다. 중학교 선수들은 만나보기 힘든 럭비 선수들을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상 깊게 밝혔다.

럭비 아카데미 참가한 한 중학교 선수는 “국내의 럭비 리그에서 뛰고 있는 럭비 선수들을 만

나볼 기회가 없는데, 아카데미를 통해 선배들과 직접 소통하며 궁금했던 점을 해소할 수 있어 좋았다”면서 “앞으로도 럭비선수라는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웃맨 럭비단 관계자는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최강럭비 : 죽거나 승리하거나’부터 최근 국내 최초 럭비 드라마인 ‘트라이’가 방영되는 등 럭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럭비 아카데미가 저변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럭비 저변 확대에 더해 진짜 럭비 정신이 널리 퍼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축구대회, 목포서 성료

풋살 4인제·골든벨 퀴즈·토크콘서트 등...‘축제의 장’ 평가

‘제2회 Dream Up 2025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축구대회’가 지난달 30~31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남도체육회와 목포스포츠클럽이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했다.

대회에는 U-12(초등부), U-15(중등부) 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한 총 86개 팀 440여명이 참가해 풋살 4인제, 개인전, 축구올림픽, 축구퍼포먼스, 골든벨 퀴즈 등 다양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기장 안팎에서는 축구 불링, 토크콘서트, 축구 프리스타일 등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FC목포 축구선수 특강·진로 상담, 친환경 플로깅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에 청소년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목포스포츠클럽은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50% 비율로 한 팀을 구성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추구했다. 개인 물병 사용, 재활용품 기념품 제작, 인

쇄물 최소화 등 친환경 운영 방침 또한 적극 실현했다.

박경래 목포스포츠클럽 회장은 “청소년들이 단순한 스포츠경기를 넘어 진로를 고민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도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축구를 즐기는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의 체력 향상과 팀워크 경험뿐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전남도체육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스포츠클럽은 지난해 열린 제1회 청소년스포츠한마당 평가에서도 전남 1위를 차지하며,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스포츠클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2회 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전남 전역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금호 SL모터스포츠팀, ‘현대 N 페스티벌’ 2라운드 우승

이창욱·노동기 선수 1·2위 차지...모터스포츠 기술력 입증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후원하고, 신영학 감독이 이끄는 금호 SL모터스포츠팀(이하 금호 SLM팀)이 현대 N 페스티벌 2라운드에서 1, 2위를 차지하며 모터스포츠 기술력을 입증했다.

금호 SLM팀 소속 이창욱 선수는 최근 강원도 인제 스피드돔에서 열린 ‘현대 N 페스티벌’ eN1 클래스 2라운드에서 기록 12분10초278(7랩)로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착했다. 그 뒤를 이어 금호 SLM팀 노동기 선수가 3초677의 차이로 2위에 올랐다.

두 선수는 앞서 진행된 라운드 예선에서도 1, 2위를 차지하는 등 안정적인 경기를 이끌어 금호 SLM팀의 원-투 퍼니시(1-2 Finish: 같은 팀 선수가 1, 2위를 차지하는 것)의 영광을 안았다.

이창욱 선수는 “예선 경기부터 차량 밸런스와 타이어 컨디션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진행할 수 있었다. SLM팀, 금호타이어의 강력한 팀워크와 탄탄한 실력으로 남은 경



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eN1 클래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단일 차종) 레이스인 ‘현대 N 페스티벌’의 전기차 레이스로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인 동시에 전 세계 최초로 레이스 전용 슬릭타이어를 적용한 전기차 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

## 김하성, 탬파베이서 애틀랜타로 전적 이적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탬파베이 레이스에서 뛰던 내야수 김하성(29)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로 소속을 옮겼다.

MLB닷컴은 2일(한국시간) “탬파베이가 김하성을 웨이버 공시했고, 애틀랜타가 김하성을 영입했다”고 전했다.

2024시즌까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뛰 김하성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으로 탬파베이 유니폼을 입었다.

2년 2900만달러에 계약한 김하성은 지난 시즌 도중 어깨 부상 여파로 7월 초부터 메이저리그 경기에 출전하기 시작했다.

올해 김하성이 탬파베이에서 거둔 성적은 24경기에서 타율 0.214, 홈런 2개, 5타점이다.

김하성을 영입한 애틀랜타는 이번 시즌 62승 75패를 기록,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5개 팀 중 4위에 머물고 있어 ‘가을 야구’ 가능성은 크지 않은 팀이다.

애틀랜타는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하성은 시카고 컵스와 원정 경기가 열리는 3일 팀에 합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전 소속팀이 된 탬파베이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하성의 짧고 실망스러웠던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전했다.

김하성은 이번 시즌 연봉 1300만달러, 2026시즌 1600만달러 조건에 탬파베이와 계약했으며 이번 이적으로 올해 남은 급여 200만달러는 애틀랜타가 부담하게 됐다.



이여가게 됐다.

김하성은 지난해 8월 어깨 수술 후 잦은 부상에 시달렸다. 올해 6월 마이너리그 재활 경기 중 오른쪽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을 다쳤고 7월 MLB에 복귀한 뒤엔 오른쪽 종아리, 허리를 차례로 다쳤다. 8월 21일에 허리 근육 경련 증세로 정밀 검진을 받은 뒤 염증이 발견돼 부상자 명단(IL)에 올랐다가 빅리그 복귀를 준비하던 중 새 동지로서 울리게 됐다.

연합뉴스